

국고채 쓸어담는 외국인... 투자비중 15% 3년來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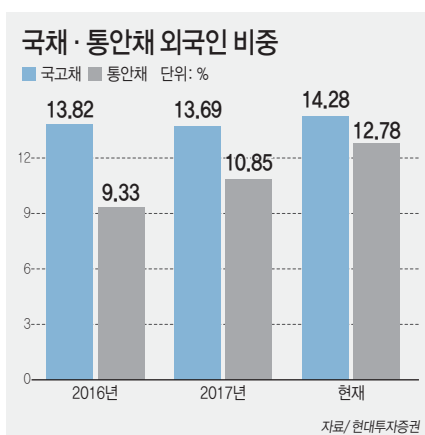
원화채권 투자잔액 107.4兆 기록
한국경제 신뢰도 기반 증가 추세
금리인상 등 리스크 모니터링 필요

외국인이 국내 채권시장에서 '왕성한 식욕'을 자랑하고 있다. 국고채 투자 비중은 15%에 육박하며 3년來 최고 수준이다.

한국 국채가 외국인에게 각광받는 이유는 우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이 상대적 '안전국가'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무디스가 매긴 신용등급에서 한국은 세 번째인 Aa2이다. 피치가 한국에 부여한 AA- 등급도 네 번째 단계로 신용이 좋다.

주요 20개국(G20) 중 한국보다 S&P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는 최고 등급(AA)인 독일, 캐나다, 호주 등 3개국과 미국(AA+) 뿐이다.

그러나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라 지적이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된 상황



에서 상황이 달라지면 일시적인 자금이탈이 우려되다. 외국인투자도 단기물에 집중돼 있다.

◆韓경제 탄탄, 재정거래 유인 증가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외국인의 원화채권 투자 잔액은 107조4000억원이다. 이미 전 고점 106조2000억원(2015년 7월 6일)을 넘어섰다.

외국인의 원화채권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스왑레이트 하락에 따른 재정

거래 유인이 컸다.

한국경제에 대한 두터운 신뢰도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남북화해무드가 조성되면서 추가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각각 3.0%로 예상했다.

엄치성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장은 최근 컨퍼런스에서 "한반도내 항구적 비핵화 조치가 마무리돼 오는 2020년부터 남북한 경제통합이 시작될 경우 남한의 GDP 증가액이 831억달러(약 90조 원, 연평균 0.81%포인트 증가)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S&P가 평가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AA(안정적)이다. 또 3984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이 든든한 방어벽이다. 지난 4월 경상수지는 17억7000만달러 흑자로 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유지했다.

이는 직접적으로 외화 공급 확대를, 간접적으로 대외 신용도 제고(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을 통해 원화 가치를

끌어 올린다. 원화값이 상승하면 외국인 투자자로서는 자금을 회수할 때 채권 가격 상승과 함께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한국 채권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들 스펙트럼도 넓어지는 추세다. 과거 한국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큰손은 주로 미국 중국 서유럽 국가들이었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스위스 등 북유럽 국가들이 '한국 채권사랑'에 빠진 모양새다.

◆美 금리인상, 유럽 정치리스크 경계해야

현대차투자증권 김지만 연구원은 "한·미 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잔고는 지속해서 늘고 있다"면서 "스왑레이트 하락으로 외국인 재정거래 유인이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 채권자금 유입세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유럽의 정치 리스크 확대 때문이다.

NH투자증권 강승원 연구원은 "5월 금

등했던 이머징 시장 금리는 되돌림을 보일 전망이다. 다만, 유럽의 정치적 리스크 확대도 달러 강세 압력이 확대되고 있는 점은 여전히 이머징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단기채 투자 비중도 높다. 2016년 9.33%였던 외국인의 통화안정채권(통안채) 투자 비중은 올해 12.78%까지 증가했다.

신한금융투자 신열 연구원은 "주요 투자자는 올해 누적 기준으로 28조원의 국채 현물 순투자를 단행했다. 만기별 순투자는 주로 2년 이하 구간에 집중됐다. 이 구간의 순투자액은 19조9000억원으로 전체 대비 약 51%의 비중이다"면서 "금리 상승 및 하락이 반복되는 만큼 방향성 리스크가 커졌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듀레이션 확대보다는 축소를 가능하게 하는 단기물 선호 심리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부영, 회장 직무대행에 이세중 명예이사장

신명호 회장 직무대행과 공동경영체제

부영그룹은 7일 회장 직무대행으로 이세중 환경재단 명예이사장(사진)을 선임한다고 6일 밝혔다. 취임식은 같은 날 부영태평빌딩 7층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로써 부영그룹은 지난달 취임한 신명호 회장 직무대행과 이세중 회장 직무대행이 공동 경영체제를 갖추게 된다.

지난달 취임한 신명호 회장 직무대행은 기획관리, 건설, 영업, 재무, 해외사업, 레저사업 업무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한다. 이세중 회장 직무대행은 법규, 감사 업무 등 법규 총괄을 맡는다.

이 선임 회장은 "투명하고 바른 경영으로 부영그룹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1935년 서울 출생인 이 회장은 인권 변호사 1세대로, 민주화 운동과 시민사회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그는 경기고, 서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56년 제8회 고등고시 행정 및 사법과에 합격, 법조계에 들어섰다. 1970년대 긴급조치 1호 때부터 민청학련 사건과 김지하 재판 등 민주화 운동 인사 사건 130여 건을 무료 변론했으며, 이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환경운동연합·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등 시민운동을 이끌었다.

또 현대합동법률 사무소 대표 변호사(1981년), 제37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1993년~1995년),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1993년~200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2005년~2009년), 제1대 환경재단 초대이사장을 거쳐 환경재단 명예이사장, 함께일하는재단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이런 공로로 제18회 만해대상(실천 부문)을 받기도 했다.

/채신화 기자

전세가율 '뚝'... 보유세 개편 발표까지 지속 전망

매매가 하락에도 하락폭 더 가팔라
양도세 증가·재초환 등 침체 영향

최근 전세값 급락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인 '전세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삼성증권 윤석모 애널리스트는 6일 '전세가율 하락세 지속' 보고서에서 "매매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음에도 전세가율 하락폭이 더욱 가팔라 전세가율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5월 넷째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05% 하락했고, 전세가율지수는 전주 대비 0.13% 떨어졌다. 매매가격 지수는 지난 3월 중순 주간변동률이 하

락 전환한 이후 하락폭이 커져 왔으며, 전세가율지수는 2017년 11월 하락 전환해 현재까지 낙폭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윤 애널리스트는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증가 시행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며 "최근엔 예상을 뛰어넘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규모가 발표되는 등 특히 재건축시장의 분위기가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분위기는 6월 말 보유세 개편안 발표까지는 이어질 전망이다"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입주물량이 증가하면서 전세가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65.8%로 지난 2014년

12월(65.7%)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다.

윤 애널리스트는 "이런 현상은 최근 서울 뿐만 아니라 인근 수도권지역까지 입주물량이 증가하면서 전세공급이 늘어난 점이 전세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 미분양 증가분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가구수는 5만9583호로 전월 대비 2.7%(1579호)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9.0%(1654호) 증가한 반면, 지방은 0.2%(75호) 줄었다. 수도권 중에서는 화성, 평택 등 경기도에서 미분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신화 기자 csh9101@

LH, 신규 공동주택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각 세대 월평균 2500원 절감 예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 하반기 준공하는 장기임대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모든 신규 공동주택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태양광발전설비는 세대당 130W, 총 2635kW 규모로 설치되며 앞으로 각 세대는 월평균 2500원 가량의 전기요금 절감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작년 12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2020 이행계획'의 일환으로, LH는 앞으로 모든 공동주택에 태양광 발

전설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LH의 올해 주택 사업승인 물량이 6만 4000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10.8GWh의 전력을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과 맞먹는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게 된다고 LH 측은 밝혔다.

이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도 연간 19억 원에 달할 것으로 LH는 추정했다.

/이규성 기자 peace@



6월5일 런던 엑스포 행사장에서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신홍희 상무가 KRX 부스를 찾은 해외기관 투자자에게 국내 파생상품시장을 설명하고 있다.

KRX, 국제파생상품엑스포서 홍보 활동

한국거래소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제11회 FIA 국제파생상품EXPO'에 참가해 한국 파생상품시장 홍보 및 현지투자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세일즈 활동 전개했다고 6일 밝혔다.

FIA 국제파생상품EXPO(FIA International Derivatives EXPO)는 글로벌 거래소, 규제기관, IT계열사 및 정보벤처 등 파생업계관련 기관이 전용부스를 운영하며 유럽지역 기관투자자 및 브로커 등 수천명의 내방객을 대상으로 홍보할

등을 펼치는 유럽 최대의 파생상품 업계 행사다.

한국거래소는 동 기간 동안 전용부스를 운영하여 신규 고객 유치, 유럽지역 투자자 면담 및 1대1 세일즈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한국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홍보활동 펼쳤다.

또한, 유럽지역 규제변화, 암호화폐화 전망 등 파생상품 업계 현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에 참가하여 업계의 흐름과 한국 시장의 시사점을 파악했다. /김문호 기자

'부동산 특사경' 400명 수사 실무교육

불법 청약·분양권 전매 등 단속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사고 파는 일을 막기 위한 '부동산 특사경' 수사실무교육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지명자를 대상으로 불법 청약, 분양권 전매, 실거레가 신고 및 중개업법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한 실무교육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전국 지자체에서 기존 부동산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가운데 특사경 지명(신청자 포함)이 완료

된 400여명이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부동산 특사경 제도 시행 이후 지자체별로 특사경 지명이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차원이다.

국토부,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등의 분야별 전문가 등이 강의를 맡아 부동산 분야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기본적 수사 요령 등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주요 부동산 범죄는 분양권 불법전매를 비롯해 미등기 전매, 실명제 위반, 중개사 불법중개, 입주권 불법전매, 토지거

래 허가 위반, 업다운계약, 편법중여 및 상속 등이다.

이들 부동산 불법행위는 대부분 은밀하게 이뤄져 일반 공무원의 단순 현장점검과 자료조사만으로는 효과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특사경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 행정지도·점검만으로는 할 수 없었던 수사개시, 긴급체포, 압수수색, 영장신청, 사건송치 등 수사를 하게 되면 불법행위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올해 특사경 활동은 불법 청약과 분양권 전매행위, 실거레가 신고 위반(업다운 계약)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연합뉴스